

국회의장상 고 상 구 회장

K&K트레이딩 (베트남)

출생년월일 1958년 4월 10일
출생지 대구광역시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1995)
회사명 K&K트레이딩
계열사 K-MARKET(한국식자재) - 90개 점포
K-Food - 10개 점포, 스타 코리아 (인삼매장) - 2개 점포
이주년도 2002년
직원숫자 850명
매출액 8천만달러(2019년)

주요 경력
1996 서울강동청년회의소(JC) 회장
2014 제 10대 재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
2012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이사
2014 이태 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회장
2016 제2대 베트남 한인회 총연합회장
2019 제 18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훈 포상
2018 국민훈장 동백장
20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고의 가치와 품질, 서비스 면에서 일류 지향... 이윤은 저절로

용을 닦은 고가의 인삼주 대박... 인삼매장 40개로 '인삼왕' 불려

한국에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던 고상구 회장은 2002년 베트남에 건너가서 주디엠에스 비나 코리아를 설립했다. 42세였던 고 회장은 전 재산을 투입해 한국형 백화점 KOREA TOWN을 베트남 하노이 장보(Giang vo) 국제전시장에 세웠다. 그러나 베트남을 만만하게 보았던 탓으로 6개월 만에 폐업했다. 폐점 앞두고 과감한 마지막 세일 행사로 약 3억 원을 건졌다. 그토록 백화점에서 그나마 잘 팔리던 인삼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03년에 스타 코리아 인삼 1, 2호점을 개설했다. 인삼의 여러 뿌리를 모아서 인삼주를 진열하고 'Before Dragon'(인삼의 모습이 올라 출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가격도 원가보다 20배 이상 높은 2,000US\$(200만원)으로 표기했다. 판매량보다는 전시용으로 내세워 인삼이 고급제품임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인삼주가 불티나게 팔렸다. 당시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시작되던 때라 인형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삼주를 청탁 선물용으로 구매하면서 초대박이 났다. 이처럼 최고의 인기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 전역에 인삼 매장을 40개까지 늘렸다. 이 때문에 그는 한때 베트남 '인삼왕'으로 불리워졌다.

고상구 회장의 경영철학은 '일류 지향'이다. 즉,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면 이윤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스타코리아 매장



직원들과 함께



영지버섯

폐업-물류창고 화재 극복, K-MARKET 등 100개 매장 운영

K-마켓, K-푸드 잇달아 개설...베트남 최대 한국식품유통업체 도약

인삼 판매를 시작으로 물집을 키워나간 고상구 회장은 2006년에 한국 농식품 B2B 유통회사 ㈜ Minh Han을 설립했다. 이어 2007년에 K-마트 1호점을 하노이 쩐이엔에 개설했다. 2016년에는 프리미엄 매장인 K-MARKET을 개설했다. 또 모든 한국 농산물을 유통하는 K-푸드의 매장은 10개이다. 10년 만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최대 식품유통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지화의 전략 때문. K-마켓의 매출 80% 정도가 현지인들에게 비롯됐다.

K-마켓의 성공비결은 첫째, 직원과 아이디어와 소통을 이끌어 낸 '우리는 하나'(we are one) 라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인들과 같이 하는 사업임을 내세웠던 전략이다. 셋째, 24시간 실시간 배송망을 구축하는 픽업시스템이다. 넷째, 고급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것도 베트남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들인데 한 몫을 했다. 즉, 현지인들이 쇼핑할 때 정서적으로 안락함을 느끼면서 세계 최고의 한국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벽면에 유명 그림을 그리고 고급 유품으로 인테리어를 장식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썼던 것이 주효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K-마켓이 2017년 베트남 '100대 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었다.



베트남 현지인에게 봉사하는 모습

복합물류센터 건설로 실시간 배송 가능... B2B 시장 석권

K-마켓의 매출액 대부분은 매장이 아닌 B2B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결제하는 COD(Cash on Delivery)습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 배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도시 중심에는 직영점, 외곽과 중소도시에는 가맹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배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2년까지 K-마켓은 전국 200개 매장을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는 실시간 배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하노이 외곽 푸미 공원에 2ha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해 2019년 6월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 센터에는 빠른 입고와 관리시스템과 골드체인 시스템 등이 설치된 냉동 및 저온 창고와 상온 창고 등 베트남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신속한 배송망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 회장은 오는 2022년 호치민과 다낭에도 최고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베트남 전역을 연결하는 농식품 물류체인망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문화는 장기 투자해야 ...11년째 한-베 음식문화축제 열어



제12회 세계한인회장대회 문제인대통령과 함께

한-베음문화축제

고 회장은 한국식품을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 식품은 10년 투자해야 100년을 얻고실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11년간 한-베음문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 축제는 단순히 한국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한류스타공연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보여주고 있다. 한류의 원성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결합할 때 달성된다고 믿고 있다. 그는 2017년 하노이 한인회장을 재임할 때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3일간 한베음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미담중앙운동장에 25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찾아왔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도 절친한 고상구회장 역시 베트남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그가 하노이한인회장과 베트남 총연합 한인회장, 이태 한국농식품수입상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양국간의 교류에도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회장 재임 때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19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적을 남겼다. 2019년 여수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처럼 고 회장은 평소 봉사활동은 물론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다.

2002

㈜DMISH나코리아 설립
→ 베트남 Minh Sao 상호 변경

2002년

10월 19일

하노이 장보(Giang vo) 국제전시장에 코리아타운 (한국형 백화점) 오픈

2003년

4~7월

VKO센터 내 스타코리아 인삼매장 1호, 2호 오픈

2006년

한국식품 B2B유통회사 Minh Han 설립

2007년

4월

한국식품점 K-마트 1호점 (하노이 쩐이엔점) 오픈

2010년

11월

K-마트 물류센터 하노이 프리엔즈 중소산업공단 이전

2013년

K-푸드 1호점 오픈

2014년

2월

하노이 물류센터 (3,500㎡) 화재로 전소

2015년

1월

베트남 최초 식자재전문매장 K-마트 팜홍점

2016년

3월

K-MARKET (K-mart에서 상호변경) 베트남 전역 90개 점포

2017년

10월

K-MARKET 베트남 100대 브랜드 선정

2019년

5월

베트남 성장가능 우수브랜드 TOP50 선정

2019년

6월

하노이 푸미공원에 복합물류센터 준공

